

예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

# JEW'S FOR JESUS™

2010년 2월 11권 3호



## 천국을 잠깐 맛보다

-David Brickner, Executive Director, San Francisco, USA

우리는 “천국을 잠깐 맛보았다”고 하면, 평화로운 휴가 여행지에 대한 묘사이거나, 달콤하고 칼로리가 높은 후식을 한 입 먹은 다음 말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잠깐 맛보는 천국”은, 전 세계 다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즐겁고 의미있는 시간들을 보낸 기억입니다. 믿음의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며,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이야말로 천국을 잠깐 맛보는 것이겠지요.

저는 당신이 무얼 생각할지 압니다. 저는 그 짝막한 노래도 들어봤죠: “우리가 사랑하는 성자들과 위에서 살면 -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아는 성자들과 밑에서 살면 - 그건 또 다른 얘기겠지.” 네, 물론 다른 이야기입니다. 충돌이 있는 이야기이지요 - 그러나 장차 올 영광조차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가끔 사람들로 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편지들을 받습니다 - 지역 교회에서 겪은 경험들에 대하여 불평을 한다든지,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큰 실망들이지요. 물론 저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장함으로써, 어떤 사람의 경험을 축소시키거나 고통을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사람들은 교회를 그들의 개인 샌드백처럼 치면서, 나쁜 경험에 대해 반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정적인 것에 대해 집중함으로써 긍정적인 것을 잊게 하는 것 - 인간의 연약함이 이것까지 이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나쁜 경험들, 어쩌면 점점 더 치명적이고 쓰라리기까지 한 경험들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억들에 대해 집착하는 것은 하나도 자랑거리가 못 되지요. 그것으로서 우리는 세속적인 행동들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좋은 친구이자 장기 파송 목사인 Leslie Flynn은 교회의 큰 싸움들 Great Church Fights 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싸움이 얼마나 크게 벌어질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만, 그 책은 다음과 같은 부제가 달려있습니다:

## “성경이 말하는 분쟁과 그에 대한 해법.”

만약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분쟁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을 보고 우리는 전혀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는 교회 사람들 가운데 맹렬한 의견충돌이 일어나고, 사건들이 일어나서 교회 지도자들을 끌어내리고, 교회들을 마침내 갈라지게 하는 충돌들을 듣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싸워야 하는데, 교회에 대하여 싸우기 십상입니다. 교회는 진실로 싸울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서는 교회를 죽기까지 귀중한 것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따르는 이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그가 이 지구상에서 모으신 신자들의 몸을 방어하고 그것을 위해 싸우는 일에 대해 놀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천국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지구상에 보여진 것이며, 우리 구원자의 눈에 보기에는,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어느 날 당신 자신에게 선물하실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에베소서 5:27)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위하여 싸워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서 결점이 많은 이 집단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셨는지 확인하고, 존중과 존엄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로서 여기며, 다른 믿는 이들도 그렇게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젊은 지도자들 중 한 명이 저와 같이 미국 중부의 큰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러 가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얘기하면서, 그는 두 시간 동안 교회에서 봉사하느니 차라리 같은 시간 동안 거리로 나가서 전도지들을 나눠주고 불신자들에게 말했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주고 불신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우리의 주요 행동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그의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유대인 복음 전도를 하고 싶어서 열정적으로 시작한 선교사들을 많이 봤습니다만, 결국 그들은 편안히 교회에 앉아서 유대인 복음 전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끝났거든요.

감사하게도, 우리 선교사들에게, 신자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과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것은 서로 대립하지 않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수 몸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큰 관점에서 보게끔 나의 동료들을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은 교회에 대한 더 깊은 인식을 주는, 놀라운 기회들을 가집니다. 바로 다양한 문화적, 신학적 관점을 가진 전도 집회들이 우리를 정기적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아름다운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며, 하나님 사람들의 명확하고 강력한 통일성만큼이나 교회들 사이에 있는 다양성을 보는 것을 축복으로 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내의 충돌과 분열에 대한 증거로 수많은 교파와 다른 점들을 지적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것들을 은혜의 증거로 봅니다 -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다양한 특징들과 문화들을 위한 도움이지요. 서로 다른 이들을 위한 서로 다른 하나님의 방법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모두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지요.

성경대가 서로 다른 언어들이지만 - 스페인어, 불어, 독일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그리고 히브리어 - 같은 곡조와 같은 단어들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 저는 전율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고서야 어디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것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는 똑같은 성경말씀을 두고 둘러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듣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지며, 우리 각자 자신의 문화와 생활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살아가야 할지 가르칩니다.

저는 제 고향 가까이, 그리고 아주 멀리서 섬길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른 이들에게 같은 내용으로 헌신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같은 사랑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같은 염원을 봅니다.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선교사로서, 저는 교회에 대해 감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제 자리와, 하나님이 이루어고 명령하신 것들을 위해 모으신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연합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유대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가지있게 여기는만큼, 저는 또한 더 큰 그림을 인식하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이 속해 있는 가족, 바로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습니다. 그는 분열의 벽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 내에서 아직도 많은 다른 점들과 의견 충돌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같은 운명을 나누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잠깐 맛보는 천국”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모두 모여서, 우리 예수님께 똑같은 천국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요한계시록 5:9)



## 호주 소식

**밥** 멘델스존이 그의 부인과 아이들과 함께 뉴욕 지부에서 시드니로 건너오자 “예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1998년부터 호주에 거주하는 10만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매주마다 밥과 재빨리 모아진 자원봉사자들은 만나서 기도하고 거리에서 전도하며 유대인들과 일대일 만남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Behold Your God” 캠페인을 호주에서 벌였습니다: 2003년에는 시드니에서 벌였고 2년 후에 멜버른에서 또 벌였습니다. 그 도시들은 각각 대략 4만에서 5만명쯤 되는 유대인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캠페인이 벌어지는 동안, 기독교 언론과 세속 언론 모두 밥을 인터뷰하였으며, 이는 복음의 말씀을 더욱더 퍼지게하였습니다.

2004년에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 서점과 선물가게”라는 작은 서점을, 시드니의 유대인 공동체 한가운데에 열었습니다. 매주마다 가끔 유대인들이 서점을 들르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 논쟁을 하러 오고, 어떤 이들은 질문을 하러 오며, 어떤 이들은 물건을 사기도 합니다. 의문을 갖는 이들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방법이며 하나님께 이 초대에 감사드립니다.

밥은 1998년부터 지역 교회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고 현재 매년 100개의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성경 대학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 관계에서 저희를 돕고 있는 에드 베넷 Ed Bennett 의 사역 덕분입니다. 호주에서 우리의 두 선교사인 마크와 라헬 랜드룸 Mark and Rahel Landrum 또한 지역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랜드룸 부부는 1990년 미국 뉴욕 여름 전도 집회 때 서로 만났으며 1992년에 결혼하였습니다. 그들은 시카고와 런던에서도 사역하였고 2004년에 호주로 이사하였습니다.

## 뉴에이지 시대의 대안적 복음주의?



**시**드니의 유대인 공동체는 1788년에 도착한 11명의 죄수들과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이 초기 정착자들은 결국 1830년대에 시드니에 유대인 회당을 지었습니다. 2차대전 후에 유럽계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고 많은 헝가리계 유대인들은 시드니를 고향으로 삼은 반면, 멜버른은 대학살 이후 도망쳐 온 폴란드계 유대인들을 받아주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계 유대인들과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호주에 정착하였습니다.

시드니는 호주의 수도가 아니지만, 오백만명에 가까운 인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호주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호주를 뉴욕에 비교할 수 있겠군요. 시드니는 호주 국제 여행 및 관광의 중심지이자 정치, 경제, 그리고 연예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호주의 유대인 공동체는 이스라엘/ 시오니즘과 유대인 전통 문화 보존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 유대교인들이 10%도 안 되지만, 대부분 유대인들은 신학적 문제들 때문에 복음을 거부합니다. 시드니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은, 랍비들이 제기하고, 평범한 유대인들이 말하는 반대의견에 대해, 대학교 캠퍼스, 중심가, 그리고 모든 곳에서 대화를 하며 답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수**많은 해들 동안 우리는 호주에서 예수님을 나누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동네 쿠폰 전단지에도 같이 우편을 부치기도 하고, 레스토랑들에 “시편 읽기표”를 돌리기도 하고, 비디오 카메라를 갖고 거리 인터뷰도 하며, 전도지를 나눠주고, 주요 신문에 복음광고도 내고, 동네 게시판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매주마다 우리를 궁금해하는 유대인들은 서점에 옵니다. 그들 중 매우 진지한 이들에게 우리는 성경과 전단지들을 나눠줍니다. 가끔 어떤 이는 매주 목요일 오후 여섯시에 열리는 성경공부 교실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마침내 예수님을 믿고 제자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절기인 로쉬 하샤나, 욘 키푸르 그리고 유월절에 시드니 주변의 지역에서 전도활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사들을 참석토록 우리는 기독교인들에게 유대인 친구들을 데려오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호주 소식 중 하나: 우리의 소식지가 중국어, 스페인어, 그리고 한국어로 번역되어 배포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jewsforjesus.org.au](http://www.jewsforjesus.org.au) 로 오셔서 웹사이트를 참조해주세요.

**유**명한 뉴에이지 축제에 가면 매년 우리가 설치해 놓은 복음주의 부스를 볼 수 있습니다: “정신 육체 영혼”이라고 이름붙여졌지요. 우리의 부스가 바로 “예수야 대안”입니다. 라헬 랜드룸은 계속하여 이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이 뉴에이지 집단과 관련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창조적인, 그러나 성경적인 방법들은 있는가?

그녀는 독특한 “성경 숫자 점술”을 만들었고, 우리의 부스는 “이름의 뜻을 고대 히브리어를 이용하여 풀어드립니다”라고 써붙여 놓았습니다.

전통적인 히브리어 시스템에 의하면 각 히브리어 문자마다 각각의 숫자가 붙여집니다. 라헬은 사람들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쓴 다음, 각각의 숫자를 붙였습니다. 그녀는 성경 지식과 연구를 이용하여 그 숫자의 상징적 의미를 설명하였고 이는 복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이름 풀이”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라헬은 밀려드는 주문들을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라헬은 생각했습니다. “왜 이것이 이리도 인기가 있을까? 도대체 이름에 무엇이 담겨있는 것일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절실하게 알고 싶어하는 것이구나. 사람들이 앉아서 저의 “풀이”를 듣고 싶어 속어 속에 있는 말들을 다 내어놓는 것을 보면 웃음이 나다가도 슬퍼져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떤 기본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하나**

**독특하게 만들어졌음을.** 다윗 왕은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 13-14)

“모든 사람들이 점점 서로 비슷한 생각을 하는, 점점 작아지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려고 합니다. 미래를 손에 쥐시고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시는 그 분, 그러나 그 분이 바로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당신의 내면 속에 붙들어 두기에 놀라운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있게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소식이예요.”

라헬이 만난 사람들 중 두 그룹을 봅시다.

**메**리는 그의 남편과 함께 와서, 히브리어 글자들을 보고 그녀가 유대인이고 그녀의 이름을 풀어주기를 바랬습니다. 라헬은 메리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라헬은 그녀 이름의 숫자를 풀이하였고, 성경적 의미를 설명하며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그녀는 메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의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말하였고, 그녀의 건강을 위해 기도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30분 후에 메리는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절룩거리며 걷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몸이 훨씬 나아짐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싶었고, 라헬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애**설리는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부스로 왔습니다. 라헬은 처음에 어머니와 이야기하였는데, 그녀는 기독교인이었으나 교회에 실망하여 다른 곳에서 인생의 해답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막바지에 이르자, 그녀는 라헬과 함께, 예수님께 다시 헌신하기로 기도하였습니다.

그 다음 라헬은 애설리와 이야기하고, 그녀의 이름을 “폴이”하였으며(숫자 8이 나왔습니다) 숫자가 주는 상징성을 이야기하며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여덟 명이 타고 있었으며(베드로후서 2:5), 할례는 사내아이가 태어난지 여드레 만에 시행합니다(창세기 17:12). 또한 첫 새끼는 창조주에게 여덟째 날에 드립니다(출애굽기 22:29,30). 히브리어로 여덟은 “시모네 sh'moneh”라고 하는데, 이는 shah'meyn이라는 어원에서 나왔고 그 뜻은 “기름을 만들다,” 기름으로 덮다, 남아돌다”입니다. 분사로 쓰면 “힘이 매우 센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명사로서는 “기름,” “엄청난 비옥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생산력이 있는 숫자이지요.

라헬은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께서 애설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설리는 어머니의 가족들로부터 복음을 전에 들었지만, 이번에 들었을 때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애설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을, 죄를 씻고 그 분의 능력으로 그 분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갖기 원함을, 기도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라헬은 그녀에게 지역 교회를 추천할 수 있었고, 그 교회의 자세한 정보를 주었습니다.

이 전도에 대한 라헬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들이 놀랍습니다. 그는 우리의 틀에 매이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는 다음 해에도 이것을 할 것이고 저는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이 사역에 맞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 호주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로부터 들려온 더 많은 이야기들

**마**크 랜드룸이 보고합니다.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는데 은퇴한 의사인 해리를 먼저 만났어요. 해리는 유대인이었고 그의 부인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해리는 부활이 의학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설명하였지만, 개인 정보는 주기 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부활에 대한 증거를 논하는 자료들을 보내주었고 그의 집에서 방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해리의 인생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의 부인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끈기 있고 경건한 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능력이 되셨고 해리는 말전했습니다. 그는 부인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싫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인과 함께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합니다! 게다가 제 아내 라헬이 말하는 것을 들으러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 해리는 아주 감동을 받아서 라헬로 하여금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와서 증거하게끔 했습니다.

저는 제 장인어른을 믿음으로 인도하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가 복음을 처음 접한 곳은 유대인 대학살 시절의 노동 수용소 (포로 수용소와 비슷한)였습니다. 동료 죄수의 삶을 보면서 그는 복음의 능력에서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40년을 산 후, 그는 마침내 메시아를 영접했습니다. 그 또한 불신자로서 수년 동안 아내와 같이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예수아를 메시아로 절대로 영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리의 구원과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밥** 멘델스존이 보고합니다: 제가 수잔\*과 페이스북 친구가 되는 것이 어떨까요 어느 기독교인이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캔자스 시티(제 고향이죠)에서 온 유대인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친구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보통 금기시된 이야기들을 깊게 나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경우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른 이들과 종교를 논의한다구요 (그녀의 기독교인 친구로부터 수잔이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었고, 심지어 몇 년전 교회에도 출석한 바가 있음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긍정적으로 답하자, 저는 저의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었고,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와 이야기해보지 않겠습니까?” 다시 그녀는 예라고 대답하였고 저희는 한 달 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에 잠시 휴식이 있었습니다...캔자스 시티에 있는 제 40번째 고교 동창회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휴식기간도 마찬가지 이겠죠. 그래서 저는 수잔에게 혹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렇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번 제가 약속을 잡으려고 할 때마다 그녀는 만나지 못할 이유가 생기곤 하였습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 같았고 저는 실제로 제가 마지막으로 캔자스 시티에 거주하는 날인 주일에 만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잔은 찬성했고 저희는 예배 후에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잔의 마음을 복음에 열어놓은 것이 확실했습니다만, 그녀는 어떻게 유대인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지 이해하는데 어려웠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을 펴고, 예수님과,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장대위의 뿔뿔을 비교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수잔의 아버지는 의사였고 그녀는 그 뿔뿔 상징을 평생 보며 살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그 이미지를 재빨리 주신 것 같았고 그녀는 이해하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의 명확성에 대해 만족하였고, 그 날 오후 그녀는 예수아를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다른 이들과 가까이 연결시켜주셨으며,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실지, 어떻게 다른 이들이 영생을 얻도록 도울지 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일할 때와 휴식을 취할 때도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실명이 아님



## 지부 소식들

### 이스라엘 Israel

오퍼가 보고합니다: “차치와 저는 아비\*가 만날 지점으로 지목한 곳을 불안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 남자인 아비는 그 자신을, 진리를 쫓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와의 만남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듯 하였지만, 그 전에 약속된 만남들에 나오는 것을 실패하였습니다. 아비가 이 고즈넉한 골목을 고른 것은 바로 조용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곳이 매복을 드러내기 보다는 그의 사생활을 보호했으면 하고 바랬습니다! 우리는 기도했고, 아주 관습적이고 종교적인 흑백 옷을 입은 중년남자 아비가 나타났을 때 안도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이십분의 여유가 있다고 말하고 예수아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나누었고, 특히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예언들과 그것들이 예수아에 의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예수아를 믿는다고 가정합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아비는 물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예요. 당신은 예수아를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저는 도전하였습니다.

“예 저는 예수아를 믿습니다.” 아비는 고백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차치는 회개로 시작해서 교제와 제자도로 이어지는, 신자의 삶을 설명하였습니다. 아비는 우리를 보고 물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믿고 예전의 삶을 그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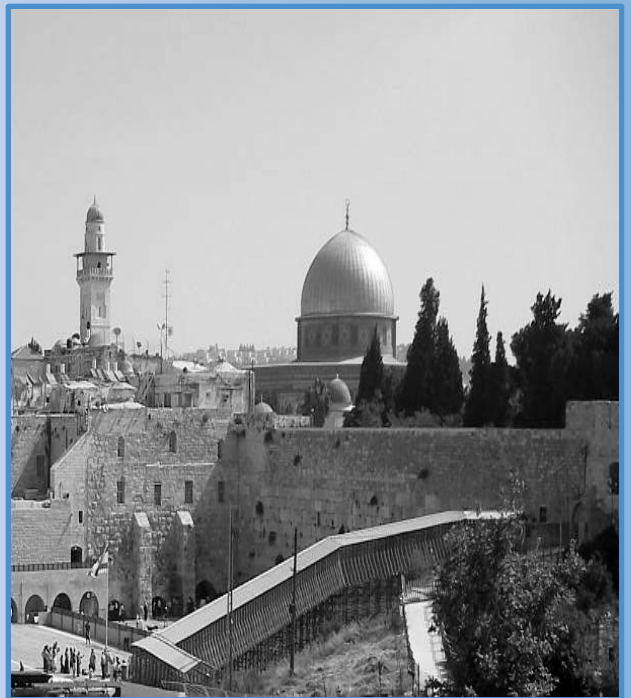
차치는 아비의 표정을 보고 그에게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무서워하는 것이지요?” 그는 물었습니다. 아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비가 말한 이십분은 한 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저는 기도하자고 권유했고 아비는 그러자고 했습니다. 기도한 다음 저는 그가 공부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을 적어주었습니다.

떠 나 기 전 에 차 치 는 말 했 습 니 다. “우리는 당신과 정기적으로 성경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아비는 거절하였지만, 우리와 정기적으로 연락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여주십시오. 이 사람은 영적으로 배고프고, 진리를 찾고 있으며, 예수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였지만 믿음의 대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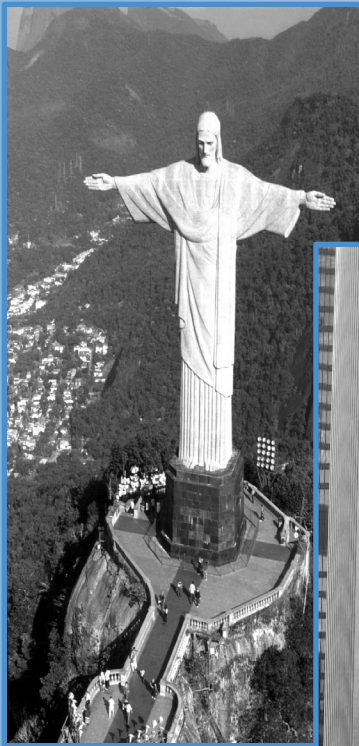
\*본명이 아님



이 쇼핑백들 끝내주는군요!

브라질에서 우리 사역을 이끌어가는 세르지오 다농은 11월에 “예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에 있었습니다. 3일간에 걸친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는 가족들에게 줄 선물들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라는 단어들이 크게 인쇄된 쇼핑백을 들고 나갔습니다. 세르지오가 말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백화점에 갔습니다. 물건을 사면서, 이 쇼핑백에 관심을 보이는, 세 명의 유대인 가게 주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였고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요담, 줄리아, 그리고 제이콥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또 제가 쇼핑백을 들고 다닐 때 정말 놀라워하며 저를 바라본 또 한 명의 유대인 가게 주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십시오. 그 또한 저에게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한 시간 반 동안 그 백화점에서 걷는 동안, 저는 제 가족을 위해 선물들을 사기도 했지만, 복음을 듣고 더 알고 싶어하는 세 명의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미사 코헨이 보고합니다: “저는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 주립대로 스티브라는 자원 봉사자를 데려가서 그의 첫번째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제프라는 젊은 남자를 바로 만났습니다. 그는 그가 유대인이라고 말하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원했습니다 - 저는 이렇게 시작하는 대화를 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는 나중에 더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레베카라는 학생이 말하기를, 그의 자매가 우리 캠프 프로그램과 관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레베카는 현재 정통 유대교를 믿는 가족의 보모로 일하고 있고 그들과 복음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 지 알고 싶어합니다! 그녀 또한 추후 정보를 위해 이메일 주소를 주었습니다.

스티브와 저는 월형으로 서 있는 벤치들 곁을 걸으며 우리가 지나쳤던 학생들과 이야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가 말하였던 것을 생각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되돌아가는 길에 저는 썸이라는 남자에게 예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그 또한 유대인이었으며 우리가 왜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있는지 궁금해 하였습니다. 그는 추후에 더 이야기하기를 원하면서 전화번호를 주었습니다.

저는 거리 전도를 처음 해보는 스티브에게 그가 미래의 사역을 크게 기대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믿습니다. 이 모든 만남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또한 이 달에 미국 피닉스의 전도사역에서 브루스 래프를 도울 스티브를 위해서도 기도해주십시오.

## 연락처

Jews For Jesus:

GPO Box 925, Sydney 2001 AUSTRALIA

호주 전화번호: +61.2.9388.0559

이메일: mail@jewsforjesus.org.au

홈페이지: jewsforjesus.org.au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크라이나, 미국 그리고 영국에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후원계좌:

호주 NAB BSB 082.067 계좌번호 46.072.8465

뉴질랜드 BNZ.BSB 020.484 계좌번호 010.6273

싱가포르 OCBC 예금주: Jews For Jesus

계좌번호 581.252.897.001

PayPal, 신용카드 그리고 TT로도 후원을 받습니다.